

예 배 안 내

오늘 예배는 마르틴 루터가 1526년에 펴낸 『독일 미사』를 바탕으로, 회중 찬송을 중심에 두고 떡과 잔을 모두 나누는 성찬까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올해는 『독일 미사』가 나온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의 예배를 연구해 온 양영금 박사(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가 기획하고, 같은 대학의 역사음악학자 베른하르트 안츠 교수가 자문했습니다.

루터의 예배 개혁: 회중의 말로, 회중의 노래로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과 만인제사장 정신을 예배에 담았습니다. 『독일 미사』에서는 성경 봉독과 찬송, 신앙고백을 회중의 말인 독일어로 드리도록 예배를 새로 짰습니다. 루터가 개혁한 예배의 특징은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① 회중 찬송

사제와 성가대가 라틴어 성가를 주로 맡던 예배에서, 회중이 모국어인 독일어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② 설교

신앙고백 뒤에 그날의 복음서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해, 예배 안에 설교의 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③ 양형 성찬

평신도는 빵만 받던 관행을 바꿔, 회중도 빵과 포도주를 함께 받게 했습니다.

④ 주의 식탁

성찬을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성찬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받는 주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와 음악

예배는 『독일 미사』처럼 회중의 모국어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첫 곡은 루터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송가 585장)입니다. 말씀 봉독과 사도신경 다음에 설교가 이어지며, 성찬을 마친 뒤에는 루터의 예식처럼 아론의 축도로 회중을 축복합니다.

영광송(찬송가 9장)과 설교 후 찬송(586장)은 1절 성가대, 2절 독창, 3절 회중 순으로 부르고, 간주에 이어 4절을 모두 함께 부릅니다. 성찬 감사기도 가운데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르고, 주기도문은 찬송가 635장으로 노래합니다. 순서지의 주요 순서에는 라틴어·독일어 이름(Introitus, Credo, Präfation 등)을 함께 적었습니다.

성가대와 독창, 악기와 회중 찬송이 어우러지는 이 예배에서, 루터 당시의 회중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동교회의 예전예배

안동교회는 유경재 원로목사 때부터 예전에 관심을 두고 성찬식을 예식서에 따라 진행해 왔습니다. 황영태 담임목사는 이를 이어받아 2010년 부활주일부터 주일 1부 예배를 기독교 전통 예배인 예전예배(Liturgical Worship)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예배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세기 교회부터 이어 온 기독교 전통 예배를 고증을 통해 되살린 것입니다. 이번 예배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찾고 기독교 전통 예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



황영태 목사
인도
안동교회 담임목사



정홍열 목사
설교
아신대학교 총장



양영금 박사
예배 기획
뮌헨대학교



김성미 선생
찬양대 지휘



김연주 선생
오르간

오보에 김소연 · 안동교회 찬양대

기획·자문 소개

양영금 박사 Dr. Young-keum Chung 예배 기획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독일로 유학하여 음악으로 학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뮌헨에서 교회음악 학사과정을 마치고,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미하엘 라돌레스쿠를 사사하며 오르간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마쳤다. 하노버에서 음악학·음악교육학 석사, 브레멘에서 교회음악 최고과정(A-Examen)을 마쳤고, 뮌헨대학교에서 베른하르트 얀츠 교수의 지도로 미하엘 프레토리우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감독으로 활발히 연주하며, 음악학자로서 17-18세기 역사적 연주 관행과 루터 이후 교회음악의 음악학적·신학적 해석을 연구하고 있다.

베른하르트 얀츠 교수 Prof. Dr. Bernhard Janz 자문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음악학·역사학·이탈리아어학을 공부하고, 1987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루카 마렌치오의 마드리갈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르네상스 및 초기 근대 음악사 연구로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마쳤다. 1995년부터 뮌헨대학교 음악학 교수로 재직했고, 바이로이트 교회음악대학에서 음악사 교수로 활동했다. 역사음악학을 중심으로 15-18세기 고음악의 이론과 역사, 역사적 문헌에 바탕을 둔 음악 출판과 기보법을 연구하고 있다.

안동교회는 1909년 서울 북촌에서 양반 출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선교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한국인들만으로 시작한 장로교회입니다. 한석진 목사가 초대 목사로 시무했고, 현재 황영태 목사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안동교회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57 · 02-733-3395